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 특성

김 지 영* · 김 영 인**

서일대학 의상과 전임강사*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Five-elements Color of Traditional Costume of Korean Basic Culture

Ji-Young Kim* · Young-In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Textile, Seoil College*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7. 3. 2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colors of the costumes in Korean basic culture in the aim of seeking Five-elements color found in Korean civilian's costume culture.

The scope of Korean basic culture was 32 items specified as an import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the side of religion and art for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ithin these limits, the colors of the dress, accessories, instruments were extracted by comparing with the naked eye in NCS Color System.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was that Red was yellowish red and high chromatic and deep tone within 4area. Blue was purplish blue and high chromatic and deep tone within 4area, similarly Red. Yellow was pure yellow and high chromatic and bright tone within 3area.

Red and Blue in Korean basic culture were more primary color and more high brightness than Korean traditional colors.

Religion and art for Korean civilian revealing the Korean basic culture reflected impending real-life of Korean civilian who intend to overcome their desperate reality at using Five-elements color in their costume.

Key words: basic culture(기층문화), five-elements color(오방색), color analysis(색채분석), NCS color system(NCS 색체계), traditional color(전통색),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

I. 서론

복식은 한 민족의 집합적 사고를 표출하며, 그 안에는 민족의 정서, 사상, 의식, 감정 그리고 역사성과 문화성이 내재되어 있다. 복식은 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복식에 고유한 독자성과 문화적 개별성이 반영된다. 특히, 복식디자인에서 중요한 시각 요소로서의 색채는 그 시대의 집합적 사고와 미적 가치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며, 특히 예복에 사용되는 색채는 그 시대 복식에 표현되는 관계적인 색의 상징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일반화되어 색채 감정으로서는 한 민족의 전통에 남아 있게 된다.

음양오행적 우주관에서 비롯된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은 한국문화의 기본색이며, 전통적으로 음양오행의 이치대로 색채를 생활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오방색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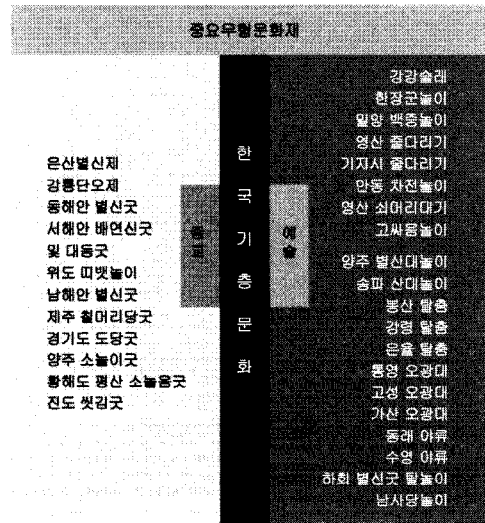
이 연구는 한국 민족의 보편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인의 문화 즉,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오방색 특성을 밝힘으로써 민간인 색채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범위는, 현대까지 계승되는 한국 기층문화 중 종교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32종을 채택하여, 섬유소재의 직물이나 종이로 된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의 색채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층문화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각 종목의 사진을 수집하여 색채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사진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시리즈와 <문화재청>이 기획한 「중요무형문화재」시리즈, <문화재 연구회>의 「중요무형문화재」,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등이다. 표준화된 색채전달도구에 의해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NCS 색체계를 기반으로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로 분류된 사진상의 색채를

시감비색으로 추출하였다. NCS 색표집 제2판을 이용하여, GretagMacbeth사의 SpectraLight II 에서 측정반사각 0/45°, 광원 D65, 측정시야각 10°로 측색하였다. 1차 선정 후 인쇄 상태를 점검하고, 색채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한 후, 최종 190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연구대상의 범위

둘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색채에서 대표색을 추출하여 오방색을 선정하였다.

넷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오방색을 선행 연구된 한국 전통색채의 오방색과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색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CIE L*a*b*값을 이용한 3차원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오방색 특성을 규명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 기층문화

한 나라의 국가나 민족을 단위로 문화의 형성·발전 양상을 살펴볼 때 두 가지 면을 고려할 수가

있다. 하나는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영역, 즉 왕을 비롯해서 정치가, 문학가, 사상가, 과학자들로 고도의 발달된 문화의 창조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무명·무연의 민간인들로서 오로지 조상들이 남긴 유형·무형의 유산만을 이어 받아 묵묵히 생활해 온 집단이다. 이들의 생활양식과 사상에는 분명히 그 원형이 있고, 상류계급의 고급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그 민족의 문화적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원형이 존재하는데, 이를 기층문화(基層文化)라고 한다²⁾.

이처럼 문화 중에는 고도한 가치추구를 목표로 결성된 개성적이고 창조적이며 시대성을 강하게 수반한 문화가 있고, 동시에 그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적, 유형적으로 일반화되고, 어느 시대에 한하지 않고 수세대에 걸쳐 일관적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도 있는데, 독일의 나우만(Hans Nauman, 1866-1951)은 전자를 표층문화(表層文化), 후자를 기층문화(基層文化)라고 하였다. 표층문화는 표현문화(Over Culture), 행위문화(Behavior Culture), 참문화(Real Culture), 물질문화라 할 수 있고, 기층문화는 내재문화(Cover Culture), 이상문화(Ideal Culture), 표준문화(Normative Culture),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기층문화의 주체인 '민간인'은 역사의 정면에 나타났던 상층의 귀족층과는 달리 하층민에 속하는 부류로 인정해 왔으며, 근래에는 국민 전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³⁾. 문화사 측면에서는 사관(史觀)의 전환에 따라 과거에 천민으로 취급되었던 계층을 역사의 주체 세력으로 승격시키고 그들 문화의 복합체 속에서 민족정신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인이란 관청의 관리나 군대, 학교 같은 인위적인 조직으로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상, 즉 한국인 상(像)을 의미한다. 이들은 민족 구성원의 다수 보편층이면서 핵을 이루는 기층적 구성원이므로 민간인의 연구는 민족의 연구로 이어지며, 그런 민간인에 의해 생성·전승되는 민간문화는 민족문화의

핵을 이루는 민족의 기층문화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층문화 속에는 우리의 역사·철학·종교·사상·문학 등의 정신적 원류가 흐르고 있으며, 외형의 언어와 생활 모습은 변하더라도 민족의 심상적 원형은 기층문화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오랜 세월을 지탱해 오고 있다⁴⁾.

또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서나 상류계급 또는 지식층은 먼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외화주의자(外化主義者)나 사대주의자의 입장을 취하므로, 고유문화는 침염(浸染)을 덜 받는 민간층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발달된 민족문화의 하부에는 그 민족의 원본적 고유문화가 눌러여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고유한 문화요소는 민간층에서 발견된다⁵⁾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층문화에는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민족의 원형이 내재하며, 기층문화는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해 준다.

2. 한국 기층문화의 색채와 오방색

음양오행사상은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세계관으로, 음양설과 오행설은 원래 독립되어 있었으나 대략 기원전 4세기 초인 전국시대에 결합되기 시작하여, 제(齊)나라의 추연(騫衍)이 체계적으로 결합시켰다. 이것은 음과 양의 상호 보완적인 힘이 서로 작용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을 발생시키고 변화, 소멸시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⁶⁾. 음양설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오행설에서 오행이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원소를 말한다. 이 5원소가 우주 사이를 유행, 변전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것이 초기의 오행설이었다. 오행의 개념은 다섯 종류의 기본적 물질이라기보다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 과정을 나타내려는 노력의 소산이며, 영원히 순환운동을 행하고 있는 다섯 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오행설은 그 뒤 계절(季節)·방위·색·맛·음(音)에 이르기까지 오행을 배당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예언에 이용되기도 하였다⁷⁾.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의하면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이 그 주된 골격을 이루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은 청(靑)·백(白)·적(赤)·흑(黑)·황

(黃)으로서 양(陽)에 해당하며 정색(正色)이라고 부른다. 동방과 서방의 사이에는 벽색(碧色), 동방과 중앙 사이에는 녹색(綠色), 남방과 서방의 사이에는 홍색(紅色), 남방과 북방의 사이에는 자색(紫色), 북방과 중앙 사이에는 유향색(疏黃色)을 이루어 이것을 음(陰)에 해당하고 간색(間色)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은 한국문화 속의 기본색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음양오행의 이치대로 색채를 생활에 활용하였다⁸⁾.

한국의 색채는 선사시대에는 샤머니즘적인 색채관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중국의 사상체계에 뿌리를 두고 음양오행사상이 생활에 침투하면서 그 영향으로 색채관이 정립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세계관이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음으로써 신분구조나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귀족과 서민의 계층적 분리를 확연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사상이 음양오행사상과 결합하면서 색채는 지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민간신앙에도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즉, 한국 고유의 색채인 샤머니즘적 색채관이 음양오행설과 결부되어 독자적 색채관을 탄생시킨 것이다⁹⁾.

한국 기층문화에서의 복식의 색채를 살펴보면, 샤머니즘에 기원한 오방색의 색채사용은 모든 색채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우주 생성의 기본색인 백·흑·청·적·황의 오색이 신성하고 신비로운 힘을 지닌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런 오방색의 화합을 통하여 오행을 상생시키는 한편,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 의식에는 주로 적색과 청색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귀신음양(鬼神陰陽)이라는 이치에서 음에는 양으로 대치함으로써 중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물이 무성한 남방의 색인 적색과 해가 뜨는 동방의 색인 청색은 양색으로서 악귀를 쫓는 색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을 벽사색(辟邪色)이라고 한다¹⁰⁾.

이와 같이, 한국 기층문화의 색채는 유교적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민간신앙적 색채관 위에 중국의 음양오행사상과 유교적 신분구조

를 나타내는 색채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적층을 이루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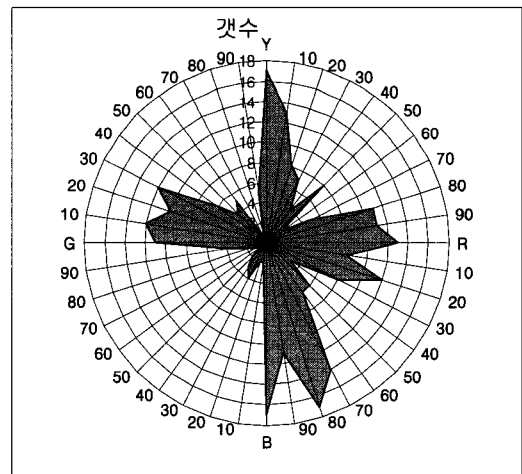
Ⅲ.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 특성

1.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색상·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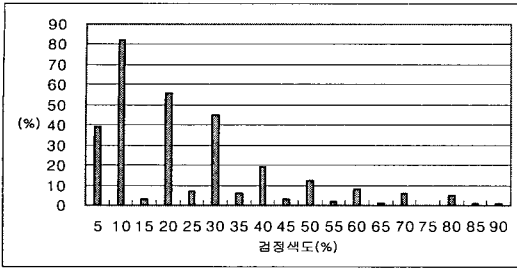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90장의 사진으로부터 총 1174개의 색채가 추출되었고, 이중 중복되는 색을 제외한 색은 총 296개로 나타났다. 이 296개 색채의 색상·검정색도·유채색도의 빈도를 분석하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2>와 같이 Y, R, B, G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B와 G 사이에는 빈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Y, R, B의 오방정색을 중심으로 색채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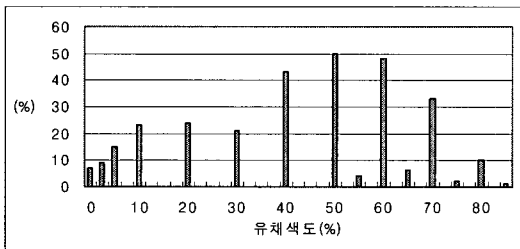
검정색도는 <그림 3>과 같이 낮은 값에 집중되어 있다. 즉, 검정색도는 10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이하에 전체의 80%가량이 분포되어 너무 어둡지 않으며 연하거나 선명한 색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색상 빈도



〈그림 3〉 검정색도 빈도



〈그림 4〉 유채색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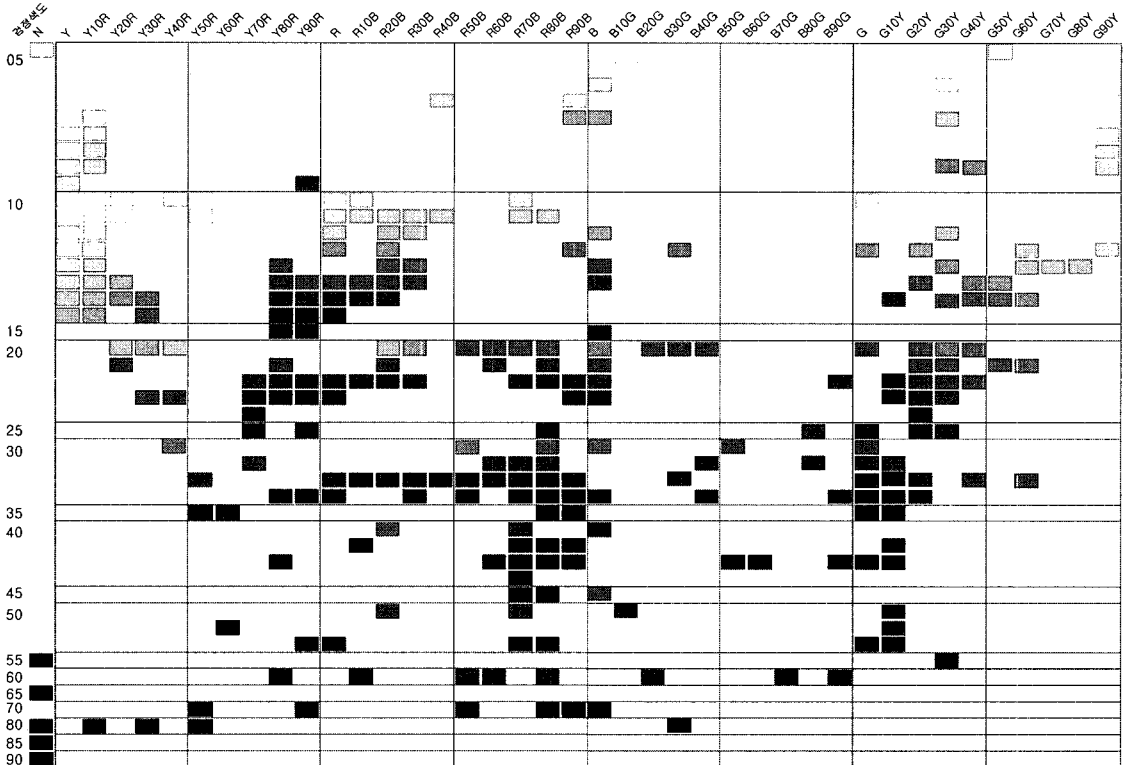
유채색도는 〈그림 4〉와 같이 50과 60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40-70 사이에 전체의 62%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밝거나 선명한 색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296개 색채의 색상/명도를 나타낸 것이다. Y영역에서 명도가 높고, R과 G영역에서 명도가 중간이며, B영역에서 명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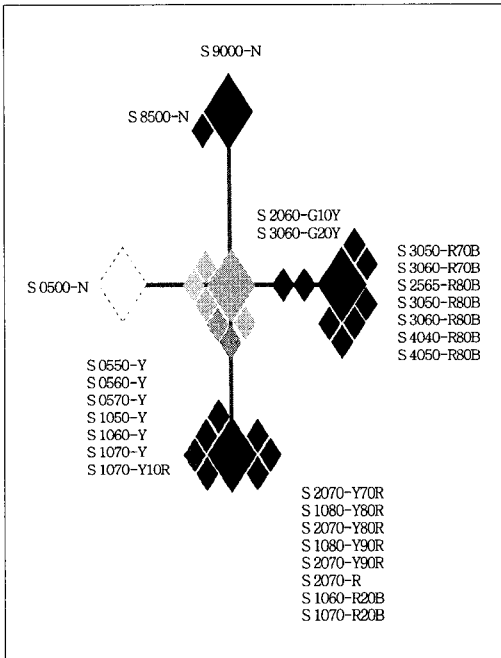
2.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전체 색채 1174색 중 빈도가 3이상인 색채를 선정한 결과 73색이 되었고, 종교와 예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색채를 선정한 결과 27색이 선정되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색채를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대표색으로 선정하였다(그림 5).

〈표 1〉 한국기층문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색상/명도 분포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대표 27색을 살펴보면, 빨강은 주황 띠 빨강과 자주 띠 빨강이 모두 나타나며, 주로 3area(Brilliant)에 집중하고 4area(Deep chromatic)에도 해당하는 짙은 색조가 나타났다. 파랑은 모두 보라 띠 파랑이며, 대부분 4area(Deep chromatic)에 해당하는 유채색도가 높고 짙은 색조가 사용되었다. 노랑은 대부분 순노랑에 가까우며, 모두 3area(Brilliant)에 해당하는 짙은 색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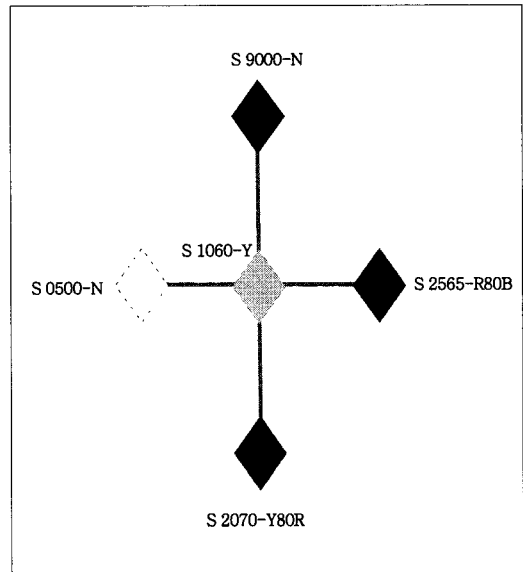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대표 27색

이와 같은 대표색 중에서, 각 색상 별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색을 선별한 결과,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을 선정할 수 있었다(그림 6).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은 이제까지 연구된 사례가 없었던 기층문화의 오방색을 표준화된 색체계를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에서, 빨강도 주황 띠 빨강으로 4area에 해당하는 유채색



<그림 6>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

도가 높고 짙은 색조이며, 파랑도 보라 띠 파랑으로 빨강과 마찬가지로 4area에 해당하는 유채색도가 높고 짙은 색조였다. 노랑은 순노랑이며 3area에 해당하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였다.

3.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과 한국 전통색채의 오방색 비교분석

이제까지 분석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색채의 결과를 선행 연구된 공신력 있는 한국의 전통색채와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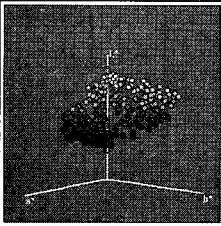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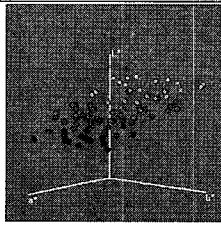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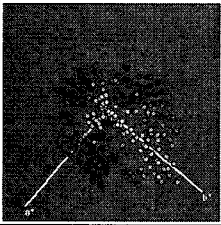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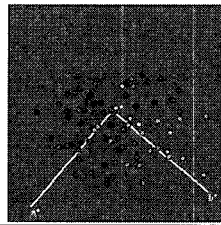
한국 전통색채의 출처는 국립현대미술관(1991, 1992)에서 발간한 「한국 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전통색 90색을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색은 재현이 아닌 추정의 방법으로 표준화에 접근한 것이다. 1차 시안에서 전통색명 195가지 가운데 78색을 추정하여 전통표준 색명으로 제시하고, 이들 78색의 표준제안 색상을 구조화함으로써 음양오행적 색차원 속에 각색의 좌표를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78가지의 전통색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전통색상 90가지를 2차 시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11).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연구 대상은 '섬유소재의 직물이나 종이로 된 의복, 액세서리, 도구'인 반면, 한국 전통색채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액세서리와 도구에 속하는 공중유물이나 일상적인 생활용품 즉, 혼례보, 상보, 토시, 건급상자 등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색채에서 의복의 색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재가 대부분 직물과 종이류이므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색채와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음 <표 2>는 앞에서 분석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와 「한국 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에서 제안하는 전통색 90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CIE L*a*b* 표색계로 나타내어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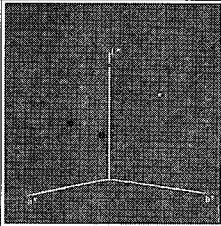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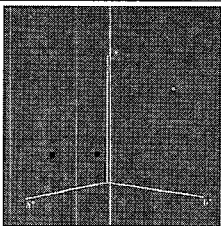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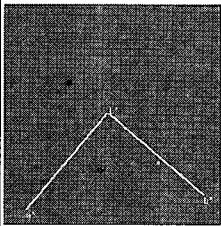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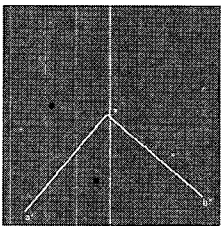
<표 2>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와 한국 전통 색채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 색채 (296색)	한국 전통색채 (90색)
3D		
색상 채도		

한국의 기층문화에서는 중간 채도의 색채 분포가 낮으나, 한국의 전통색채에서는 낮은 채도, 중간채도, 높은 채도의 색채가 기층문화에 비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기층문화에서보다 더욱 높은 채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색채에서는 색채의 사용범위가 넓는데 비하여, 기층문화에서는 색채의 사용범위가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층문화에서는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색상계열이 각 축을 중심으로

높은 채도 쪽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색채에서는 색상과 채도 면에서 고르고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명도는 두 영역 모두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국 기층문화의 오방색과 한국 전통색채의 오방색

	한국 기층문화의 오방색	한국 전통색채의 오방색
3D		
색상 채도		

<표 3>은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에서 제시하는 오방색과 한국 전통색채에 나타난 오방색 중 빨강, 파랑, 노랑의 색채를 CIE L*a*b* 표색계로 나타내어 비교한 것이다.

한국 기층문화의 오방색과 한국 전통색채의 오방색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서 제시하는 오방색과 한국 전통색채에 나타난 오방색 중 빨강, 파랑, 노랑의 색채의 L*a*b* 값을 나타내면 <표 4>와 같으며, 이것의 분석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빨강의 경우, 색상은 기층문화가 더 원색적인 빨강을 띠고, 전통색채는 비교적 주황을 띠고 있다. 명도는 기층문화가 높고(47.18) 전통색채는 상당히 낮았다(34.94). 채도는 기층문화보다 전통색채가 조금 높았다.

파랑의 경우, 색상은 기층문화가 더 원색적인 파랑을 띠고, 전통색채는 보라 띠 파랑을 띠고 있다. 명도는 기층문화가 높고(44.41) 전통색채가 낮았다(22.55). 채도는 기층문화보다 전통색채가 조금 높았다.

<표 4> 한국 기층문화와 전통색채에 나타난 오방색의 L*a*b* 값

	한국 기층문화색채			한국 전통색채		
	L*	a*	b*	L*	a*	b*
빨강	47.18	42.69	27.67	34.94	49.80	30.17
파랑	44.41	2.27	-42.27	22.55	25.72	-41.26
노랑	81.49	4.75	62.48	88.15	-10.80	67.25

<표 5> 한국 기층문화와 전통색채에 나타난 오방색 비교

색채	한국 기층문화색채	한국 전통색채
빨강	색상	더 빨강을 땀
	명도	높음
	채도	낮음
파랑	색상	더 파랑을 땀
	명도	높음
	채도	낮음
노랑	색상	더 주황을 땀
	명도	낮음
	채도	높음

노랑의 경우, 색상은 기층문화가 조금 주황 땀 노랑을 띠고 있고 전통색채에서는 약간 초록 땀 노랑을 띠고 있었다. 명도는 기층문화가 전통색채에 비하여 조금 낮게 나타났다. 채도는 기층문화보다 전통색채가 조금 높았다. 빨강과 파랑이 두 영역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 비하여 노랑은 두 영역을 비교할 때 가장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색상 측면에서, 빨강, 파랑은 기층문화에서 원색에 더 가까운 색채를 사용했고 노랑도 기층문화에서 더 원색에 가깝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명도 측면에서, 빨강과 파랑은 기층문화색채가 전통색채보다 크게 높았고, 노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채도 측면에서, 기층문화색채가 전통색채에 비하여 전체적인 채도가 조금 낮지만, 유의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색과 검정은 두 영역이 일치하므로 비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기층문화에서의 빨강과 파랑이 전통색채의 빨강과 파랑에 비하여 색상면에서 더 원색적이며 명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선사시대부터 있어 온 샤머니즘의 색채관 위에 음양오행사상이 결부된 한국 기층문화의 색채는 음양오행적 의식구조를 표현하면서 주술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기층문화의 색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핵심은 민간신앙과 음양오행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층문화의 오방색이 각 색상 측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명도는 더 높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초자연적 믿음에 의존하면서 색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색채 사용에 있어서 그 색상의 원색이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용하였고, 그 상징의미를 더 뚜렷이 전달하기 위하여 가지적으로 더 선명하고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 것이다. 즉, 벽사색이라고 하는 오방색의 빨강과 파랑에서 원색적이고 높은 명도의 색채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 기층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민간인들의 종교와 예술은 복식의 오방색 사용에 있어서도, 무속과 주술로서 고통스런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간절히 꿈꾸는 민간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8). 남해안별신굿.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8). 안동차전놀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8). 황해도평산소놀이굿.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경기도 도당굿.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한 장군놀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강릉단오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연구회 (1999). 중요무형문화재 2. 서울: 대원사.
- 문화재연구회 (1999). 중요무형문화재 3. 서울: 대원사.
- 김경남 (2000). 동래야류. 서울: 화산문화.
- 박전열 (2001). 봉산탈춤. 서울: 화산문화.
- 박진태 (2001). 통영오광대. 서울: 화산문화.

- 심상교 (2000). 고성오광대. 서울: 화산문화.
- 심우성 (2000). 남사당놀이. 서울: 화산문화.
- 전경옥 (2001). 북청사자놀음. 서울: 화산문화.
- 정상박 (2001). 수영야류. 서울: 화산문화.
- 정수미 (2001). 한국의 굿놀이(상). 서울: 서문당.
- 정수미 (2001). 한국의 굿놀이(하). 서울: 서문당.
- 정형호 (2000). 양주별산대놀이. 서울: 화산문화.
- 채희완 (1999). 탈춤. 서울: 대원사.
- 하효길 (1998). 한국의 풍어제. 서울: 대원사.
- 황루시 (2001). 진도씻김굿. 서울: 화산문화.
- 황루시 (2001). 팔도굿. 서울: 대원사.
- 황헌만·정승모 (2001). 한국의 세시풍속. 서울: 학교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89-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김동욱 외 (1983). 한국민속학. 서울: 새문사, p. 20.
 - 3) 민속학회 (1994). 한국 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pp. 20-24.
 - 4) 김태곤 (1984). 한국민속학원론. 서울: 시인사, pp. 22-23.
 - 5) 조지훈 (1996). 한국문화사서설. 경기: 나남출판, p. 218.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권, pp. 480-481.
 -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권, p. 27.
 -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권, p. 704.
 - 9) 김지영 (2003).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1-42.
 -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권, p. 704.
 - 11) 국립현대미술관 (1991).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 제1차 시안.
국립현대미술관 (1992).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 제2차 시안.